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42호

2025.03.20.(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 일본·희토류** 일본, 프랑스와 협력해 희토류 조달... 전기차용 광물 확보
- 베트남·희토류** 미국 지질조사국, 베트남 희토류 매장량 대폭 하향 조정
- 우즈베크·광물** 우즈베키스탄, 광물자원 강화 이니셔티브 추진
- 몽골·광물** 한-몽골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핵심광물 공동탐사 수행

주간 이슈 포커스

- EU·의약품** EU 집행위, 의약품 공급망 내재화·다각화 위한 핵심 의약품법 제안

원자재 뉴스 PLUS

- 원자재** 파나마, 코브레 파나마 광산 구리 정광 수출 허가

II. 월간 공급망



EU Omnibus Proposal 주요 내용 및 한국 기업 주요 검토 사항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IV. 공급망 소식통



2025 찾아가는 관세대응 KOTRA 설명회(울산)(~3.24.)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일본, 희토류 일본, 프랑스와 협력해 희토류 조달... 전기차용 광물 확보

- 3.17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프랑스 카레스테르社의 희토류 정제·재활용 프로젝트에 일본 에너지·금속광물 자원기구(JOGMEC)와 프랑스 정부가 각각 약 1억 유로(약 1,580억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번 협력을 통해 일본의 LPG 및 수소연료 공급사인 이와타니산업이 카레스테르社로부터 희토류를 공급받기로 했으며, 향후 일본 희토류 수요 중 20%를 충당하여 對中 의존도를 낮추고자 함
 - 계약 대상은 희토류 중 전기차에 탑재하는 고성능 자석 등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두 종류이며, 실제 제련은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임
- 일본과 프랑스는 중요 광물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 불안정성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희토류 수입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
 - 이에 양국은 2023년부터 '일프 희토류 로드맵'을 마련하여 주요 광물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해 옴

핵심 키워드

희토류

공급망 다각화

출처: 일본 경제산업성(3.17.), 일본경제신문(3.17), NHK(3.17.), 로이터(3.17.)

베트남, 희토류 미국 지질조사국, 베트남 희토류 매장량 대폭 하향 조정

-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베트남의 희토류 매장량 추정치를 2,200만 톤에서 350만 톤으로 크게 하향 조정하여, 핵심 희토류 공급국을 목표로 하는 베트남의 입지가 좁아짐
 - 베트남은 USGS의 희토류 매장량 2순위에서 중국·브라질·인도·호주·러시아 다음 순위인 6위로 하락함
 - 2024년 당시 USGS는 베트남 희토류 매장량이 글로벌 매장량의 2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풍부하지만, 개발·생산·가공 기술의 부족으로 생산량이 적다고 작성한 바 있음
- 한편, 미국과 베트남은 2023년 9월 반도체 및 핵심광물 공급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음

핵심 키워드

희토류

USGS

출처: mining.com(3.13.), 로이터(3.14., '23.9.25.), 블룸버그(3.10.),

우즈벡, 광물 우즈베키스탄, 광물자원 강화 이니셔티브 추진

□ 우즈베키스탄은 국내에 매장된 광물자원을 활용하고, 제조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광물 공급에 대한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26억 달러(약 3.8조 원) 규모의 개발계획에 착수함

* 우즈베키스탄은 금·우라늄·텅스텐·석탄·구리·납·아연 등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투자 부족으로 인해 미탐사된 지역이 다수 존재함

🔍 동 이니셔티브는 ▲텅스텐·리튬·티타늄·바나듐과 같은 핵심 원소의 매장지를 찾기 위한 지질탐사,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지역에 기술허브 개발, ▲모범적인 채굴 관행(Best mining practices) 홍보에 대한 자금지원을 포함

□ 이와 같은 행보는 미국 기업이 희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새로운 투자 기회를 얻게 하는 요인이 됨

🔍 2024년 9월, 우즈벡과 미국은 **핵심광물 협력 및 청정에너지 전환**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미국은 우즈벡 광업에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우즈벡은 **美 주도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 참여하게 됨

🔍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광물자원 강화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우즈벡 광물 부문 참여를 촉구하는 역할을 함

핵심 키워드

핵심광물

이니셔티브

출처: eurasianet(3.10.), 주우즈벡 미국대사관('24.9.16.)

몽골, 광물 한-몽골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핵심광물 공동탐사 수행

□ 3.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에서 '제2차 한-몽골 희소금속 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 간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이번 회의는 2023년 체결된 한-몽골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과 몽골은 ▲희소금속 공공탐사·개발, ▲기술협력, ▲정보교환, ▲인적교류 등을 추진해왔음

🔍 양국은 오는 11월까지 한-몽 희소금속 센터의 장비·기자재 구축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센터는 향후 우리기업의 몽골 광물 개발 진출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 또한 양국의 지질탐사 전문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과 몽골지질연구소(GCRA) 간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공동탐사를 수행하고, 몽골 내 희소금속 부존 정보를 파악할 예정임

□ 몽골은 몰리브덴·주석·니켈·희토류 등 다양한 희소금속이 매장되어 있어 **개발 잠재력은 높으나 미탐사 지역이 대부분**이며, 부존 정보가 부족하고 **운송 인프라가 미흡**해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음

🔍 특히 희토류의 경우, 세계 매장량의 16%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리 매장량 5,650만 톤, 석탄 366억 톤이 매장되어있는 세계 10위의 자원 부국임

핵심 키워드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출처: 산업통상자원부(3.12.), KOTRA 울란바토르무역관 해외시장뉴스('24.12.30.)

주간 이슈 포커스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EU, 의약품 EU 집행위, 의약품 공급망 내재화·다각화 위한 핵심 의약품법 제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11일(현지시간) **핵심 의약품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의약품법안(Critical Medicines Act)’**을 발표함

- ▶ 동 법안에 따르면, EU 내 의약품 제조시설 건설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조달업체들은 핵심 의약품 조달 과정에서 권역 내 생산 비율이 높은 생산업체를 우대해야 함
- ▶ 동 법안이 유럽 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규칙(Regulation)’의 형태로 발표되어 관보에 게재한 날 이후 2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될 예정

EU 핵심 의약품법안 더 알아보기

▶ 핵심 의약품(Critical Medicines)이란?

- ▶ ▲대체 의약품이 없거나 적은 의약품, ▲공급부족으로 인해 환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 ▲공급망 취약성이 높은 의약품을 핵심 의약품으로 지정함
- ▶ 핵심 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EU 회원국이 관심 가지는 희귀병 치료제와 같은 의약품도 핵심 의약품법안의 적용 대상임
- * 핵심 의약품 목록(Union List of Critical Medicines)은 '23.12월에 발표되어, '24년에 현행화되어 현재 270개 이상의 활성 성분을 포함

▶ 핵심 의약품법안의 배경

- ▶ EU는 주요 의약품 생산 및 의약품 원재료 수급을 중국과 인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은 점점 더 EU 권역 밖으로 이동하고 있음
- * 제네릭 의약품이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공개된 기술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주성분·함량·제형·효능효과·용법용량이 동일한 의약품임

▶ 핵심 의약품법안의 주요 내용

- ▶ 전략 프로젝트 대상 혜택 부여
 - ▶ EU 권역 내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제조 역량을 창출·확대하는 사업을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신속한 허가 절차, ▲간소화된 환경평가, ▲행정 및 과학기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 ▶ 공급 안보 강화를 위한 공공조달 조건 적용
 - ▶ 핵심 의약품 공공조달 절차에서 최저 가격만을 고려하지 않고, 권역 내 생산 비율이 높은 공급업체를 우대
- ▶ 핵심 의약품 조정 그룹(Critical Medicines Coordination Group)을 신설
 - ▶ 해당 기구는 공급망 취약성 및 핵심 의약품 제조 능력 등에 대한 EU 회원국 간 정보 공유를 지원하며,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을 조율함
- ▶ 핵심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EU 권역 밖의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 또한 추구
- *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법안 원문 27조에 간략히 기술

▶ 현지 업계 반응

- ▶ 유럽의 제약사들은 동 법안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 등 교역상대국이 EU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응책을 준비 중

핵심 키워드

핵심 의약품법

공급망 안정

출처: 유럽 집행위원회(3.11.), Euractiv(3.10.), KOTRA 브뤼셀무역관 경제통상브리핑 25-20호(3.14.)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원자재 파나마, 코브레 파나마 광산 구리 정광 수출 허가

3.13일(현지시간)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코브레 파나마 광산*에 비축된 구리 정광의 수출을 승인하겠다고 발표

* 코브레 파나마 광산은 캐나다 광산회사인 퍼스트 쿼텀(First Quantum)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공동소유한 광산으로,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약 1.5%를 차지함

▶ 퍼스트 쿼텀은 이번 승인으로 광산 부지에 보존된 약 12만 톤의 구리 정광을 해외로 선적할 예정이며, 파나마 정부는 원활한 수출을 위해 퍼스트 쿼텀이 운영하는 300MW 규모의 화력발전소 가동을 허가한 상태임

출처: 로이터(3.14.), mining.com(3.14.)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3월 2주)

비철금속 | 美 달러가치 하락 및 관세부과로 동 가격↑, 인니 광업 로열티 인상 검토로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2월	전년비(%)	3.1주	3.2주	전주비(%)
동	9,147	9,153	0.1	9,523	9,681	1.7
니켈	16,812	15,327	△8.8	15,815	16,371	3.5
아연	2,779	2,812	1.2	2,834	2,902	2.4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동) ▲달러가치 하락, ▲美 동 관세부과에 대비한 선제적 수요확대로 동 가격 상승압력

▶ 단, 미국發 무역리스트 지속 및 파나마 대형광산의 정광수출 재개 허가로 상기 상방압력 부분 상쇄

(니켈) 美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 및 인니 광업 로열티 인상 검토로 생산 차질 우려에 따라 가격 상방압력 발생

철강 | 中 계절적 수요회복 기대 및 조강생산 재개로 철광석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2월	전년비(%)	3.1주	3.2주	전주비(%)
연료탄	136.43	112.85	△17.3	104.81	108.64	3.7
원료탄	240.90	190.25	△21.0	184.20	177.30	△3.7
철광석	109.89	104.11	△5.3	101.07	101.77	0.7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유연탄) 中 경기부양책 추진 및 석탄수입 확대에 따라 연료탄 가격 상방압력 발생

(철광석) 中 건설업의 계절적 수요 회복 기대 및 조강생산 재개로 가격 상방압력이 있으나, 中 철광석 수입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상기 상승압력 부분 상쇄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3월 2주)

희소금속 | 공급 증가 및 계절적 수요둔화에 대비한 공급업체의 판매가 유지로 탄산리튬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2월	전년비(%)	3.1주	3.1주	전주비(%)
페로망간	1,201	1,130	△5.9	1,130	1,130	-
탄산리튬	12,526	10,361	△17.3	10,249	10,328	0.8
수산화리튬	11,398	9,654	△15.3	9,603	9,591	△0.1
코발트 (U\$/lb)	16.25	14.10	△13.3	14.05	17.65	25.6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257,362	230,786	△10.3	234,700	234,900	0.1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55,684	58,974	5.9	62,640	62,880	0.4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탄산리튬) 충분한 공급 및 계절적 수요 둔화로 탄산리튬 가격이 4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공급업체들은 감소하는 마진에 대응하여 판매가를 유지해 탄산리튬 가격은 전주대비 0.8% 상승

에너지 | OPEC+ 증산 결정 및 美 대러제재 완화 가능성 제기로 유가 ↓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4년	'25년	전년비(U\$/bbl)	3.1주	3.2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79.58	77.58	△2.00	71.23	71.16	△0.08
브렌트유	79.86	75.48	△4.38	70.36	69.92	△0.44
WTI	75.76	72.00	△3.76	67.27	66.63	△0.64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원유) 美 관세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심리 지속

- ▶ 3.1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국-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 회담 결과,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안한 30일 휴전안에 동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러시아도 이에 찬성하여 러-우 종전 기대 확대
- ▶ 또한, IEA는 美 관세정책에 따른 거시 경제 요건 악화가 석유 수요 악화를 촉발할 수 있다며 2025년 세계 석유 수요를 1억 391만 b/d로 전월 수준 대비 하향 조정하였음

* 한편 EIA와 OPEC는 2025년 세계 석유 수요를 각각 1억 410만 b/d, 1억 520만 b/d로 전망하며 전월 전망치를 유지

월간 공급망

◆ EU Omnibus Proposal 주요 내용 및 한국 기업 주요 검토 사항

작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Assurance ESG 그룹 심홍석 이사

2025년 2월 26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 Directive, 이하 CSRD), ▲EU Taxonomy, ▲공급망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에 대한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Omnibus Package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COM_2025_80 : CSRD 완화 개정안
- COM_2025_81 : CSDDD 완화 개정안
- COM_2025_87_1 : CBAM 완화 개정안
- COM_2025_87_annexes : CBAM 개정안 부속문서
- SDW_Omnibus-80-81 : CSRD & CSDDD 개정안의 경제적 영향 분석
- SDW_Omnibus_87 : CBAM 개정안의 경제적 영향 분석

위 Omnibus Package 개정안을 바탕으로 기존과 변경된 사항을 제도별로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CSRD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5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EU 역내 대기업 '25년부터 공시	• <u>직원 수 1,000명을 초과하는</u> 대기업, • 전 세계 매출 €50백만 혹은 €25백만 이상 * 1,00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EU 역내 상장기업은 향후 EFRAG가 공개하는 VSME(Voluntary reporting standard for SME)를 활용할 수 있음
	'27년부터 EU 역내 상장된 중소기업	중소기업 및 소규모 기업 면제 (자발적 공시로 변경)
공시 내용	• 10,000개 이상의 정량 및 정성 데이터(data point) • 산업별(sector-specific) 의무 공시 제시 예정	• <u>간소화된</u> 정량 및 정성 데이터 지표 제시 예정 • <u>산업별(sector-specific) 의무 공시 삭제</u> (공통기준 및 주제별 공시만 유지) • <u>이중 중요성 원칙은 유지</u>
	• Scope 1, 2, 3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 • 기후전환계획(Climate Transition Plan) 수립 필수	• 중소기업(SME) 및 일부 대기업(1,000명 미만)의 Scope3 배출량 보고 의무 면제
검증	2024년 도입 시 제3자 제한적 검증에서 단계적으로 합리적 검증으로 강화 예정	제3자 제한적 검증 채택 유지
의무 시기	• 1차 대상: '25년(FY24): EU 내 상장 대기업 • 2차 대상: '26년(FY25): EU 내 대기업	현행법에서 2년씩 유예 (이미 법 적용을 받는 1차 대상기업 중 미공시 기업 또한 2년 유예)

EU Taxonomy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NFRD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CSRD 적용 대상인 기업의 경우 FY25 텍소노미 공시 대상에 포함	- 현재 CSRD 적용 대상 또는 '26년 및 '27년까지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의 공시 의무를 '28년까지로 유예 공시 의무를 대기업으로 제한하여 CSDDD의 적용 범위와 일치시키고, 기타 기업에 자발적 공시를 허용
공시 내용	- 적용 기업은 정량·정성 정보 공시 필요 - Disclosures Delegated Act를 통해 공시해야 할 정보의 내용, 방법론, 표시 방식을 지정	- 공시 서식 간소화로 데이터 입력 항목이 약 70% 감소 - 회사가 해당 사업에 재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제 활동*의 적격성(eligibility) 및 적합성(alignment)을 평가할 필요가 없도록 면제 * 총매출, 자본 지출 또는 총자산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활동
배제 기준	6대 환경목표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환경 컴플라이언스 등에 준하는 수준의 복잡한 관리 기준과 데이터를 요구	- 오염 방지 및 화학물질 사용 관리 기준을 중점적으로 반영 이해관계자 피드백을 기반으로 두 가지 간소화 옵션 검토
의무 시기	금융기관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유형별로 녹색 AUM, 여신, 투자, 보험 언더라이팅 등 적격성과 적합성을 공시	- 은행의 녹색 자산 비율(GAR) 중 중소기업의 비중 제외 (중소기업 부담 완화) CSRD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직원 1,000명 이하)에 대한 평가 제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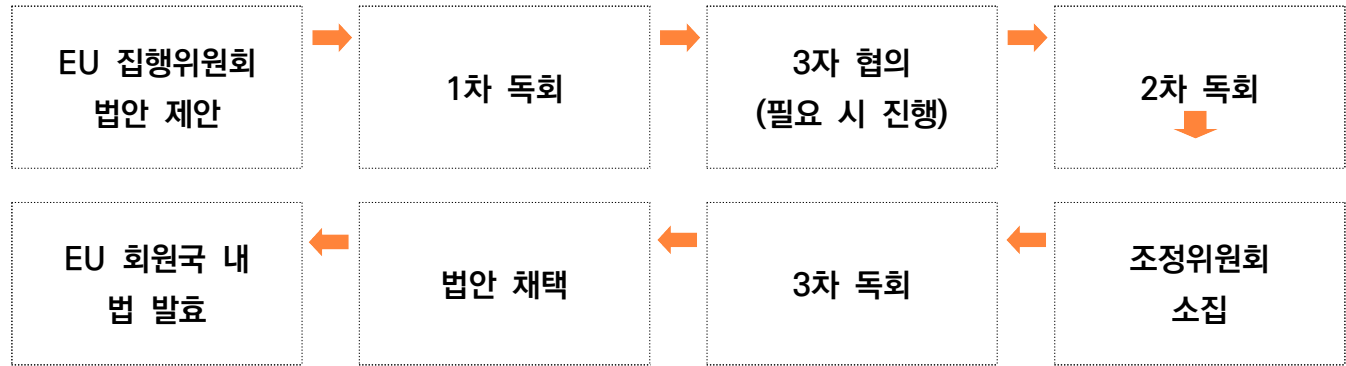
CSDDD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직·간접 협력회사 모두 - 단, 다운스트림 활동 중 소비자 사용 및 폐기 단계는 제외 기업의 실사 범위에 중소기업이 포함될 경우 동일한 실사/공시 기준 적용	1차(직접) 협력회사 - 간접 협력회사 중 인권·환경에 대한 실제적·잠재적 부정적인 영향이 인지되거나 발생한 곳은 포함 500명 이하 직원을 고용한 중소기업이 실사 범위에 속해 실사를 받을 경우, 피실사기업은 CSDDD 적용 기업에 VSME 공시에 따라 정보 제공 - 단, CSDDD 적용 기업은 mapping을 위해 정보가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에 추가 정보 요청할 수 있음 중소기업 및 소규모 기업 면제(자발적 공시로 변경)
주기/기간	- 연 1회 '26년 기업 실사 적용 '27년 기업 공개 요구	최소 5년마다 실사 정책 검토 및 업데이트 - 단, 실사 정책과 조치 등 효력이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실사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함 '28년으로 적용 시기 연기
이해관계자	간접 이해관계자 모두 고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고려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계약 종료 의무 삭제
기후변화	- 기후변화 전환계획 수립 의무 - 기후변화 리스크 반영한 경영 전략 필수	- CSRD의 기후변화 전환계획 요구사항과 연동 - 기업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best effort)으로 의무 완화
민사책임	EU 회원국이 공통적용해야 할 민사책임 기준 명시	기존 민사책임 규정을 삭제하고, EU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민사책임 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 - 회원국들이 피해입은 이해관계자가 적절한 구제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 항목 명시 요구

CBAM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CBAM 대상 품목 EU 내 수입업자	- EU 내 중소기업(SME) 및 개인이 소량의 CBAM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CBAM 의무 면제 - 연간 50톤(약 80톤 CO2배출량에 해당) 이하를 수입하는 자는 CBAM 의무에서 면제
공시 내용	전환기 이후부터 CBAM 대상 품목을 EU 내에서 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수입 허가 신청 필수, ▲직/간접 내재 배출량 공시, ▲원산지에서 납부된 탄소가격 정보 제출, ▲CBAM 인증서 매입 및 제출 등	- CBAM 대상 품목을 EU 내에서 수입하는 자의 신고자 허가, 배출량 계산, 공시 요구사항 등 간소화 - 간접 배출 보고 의무 삭제 - 기본값(Default values) 사용 확대
배제 기준	'26년 탄소배출량 보고 및 인증서 구매	탄소배출량 보고서는 '26년으로 유지되나 인증서 구매 시기 '27년으로 연기

이번 Omnibus Package 개정안에 대한 향후 입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번 EU Omnibus Package 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완화는 다음과 같이 예측된다.

CSRD 및 CSDDD 변경 사항에 대한 기업 경제적 영향 분석

기업의 지속가능성 부담을 완화시키는 CSRD 와 CSDDD 개정안으로 인해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 및 실사 의무가 완화됨**에 따라, **행정 부담과 규제 준수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들의 보고 수준이 완화되면 지속가능성 관련 데이터 수집을 위한 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공급망 실사 범위 축소로 인해 내부 관리 비용도 감소할 수 있다. 또한, 보고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간을 확보하게 되며, 일부 기업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신규 보고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글로벌 대기업들은 여전히 공급망 내 지속가능성 정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들은 보고 의무 완화와 별개로 지속가능성 관련 데이터 관리 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 CBAM 변경 사항에 대한 기업 경제적 영향 분석

CBAM 인증서 구매 시기 연기에 따라 기업들은 자본 배분 및 예산 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할 여유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기본값(Default) 사용 확대로 실제 수입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해야 하는 보고 부담을 덜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규모 수입 기업 면제에 따라 면제 기업들은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인증서 구매 및 탄소 보고 의무가 면제되어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대기업과 주요 수출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여전히 탄소 배출량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EU 규제의 영향권에 있었던 한국기업들의 Check Point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EU법인 내 직원 수 및 매출 기준 재검토 ⇒ CSRD 적용 여부 확인
- 공급망 실사(Tier1 한정)가 축소된 점을 반영하여 ESG 데이터 요청 대응 조정
- EU Taxonomy 적용 기준 변경 고려 ⇒ 친환경 수출기업 ESG 전력 조정
- CBAM 대응 전략 조정 ⇒ 간접배출량 제외 및 기본값 활용 검토, 소규모 업체 면제 가능성 확인
- CSRD 보고 면제 가능성이 있어도,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시기 및 글로벌 대기업·투자기관 요청 대비 ESG 데이터 관리 유지

공급망 더 알아보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작성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전세계·전품목에 대한 보편관세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특정국 타겟 관세보다 보편관세 도입 여부가 수출 영향의 변곡점인 것으로 분석됐다.

[1] 對중국 10%p 인상, [2] 시나리오1+對캐나다·멕시코 25%p, [3] 시나리오2+추가 보편관세 10%p

중국 관세 인상만을 고려 시(시나리오1) 총수출은 4.1억 달러 감소(-0.1%)로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다. 캐나다·멕시코에 관세를 부과(시나리오2)하더라도, 총수출 2.2억 달러 감소(-0.03%)로 역시 타격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정국 관세조치에 이어 보편관세까지 단행할 경우(시나리오3), 대미 수출은 7.9% 감소, 대중국(-1.0%)·캐나다(-3.2%)·멕시코(-11.5%) 수출도 감소하며 총수출은 132.4억 달러 감소(-1.9%)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감소율은 주요 30개국 중 4번째로 영향이 적었으며, 독일, 베트남보다 타격이 적은 점은 긍정적이다. 민·관이 지혜를 모아 선제적으로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하고 관세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중국·캐나다·멕시코에 고율 관세 부과 및 보편관세 가능성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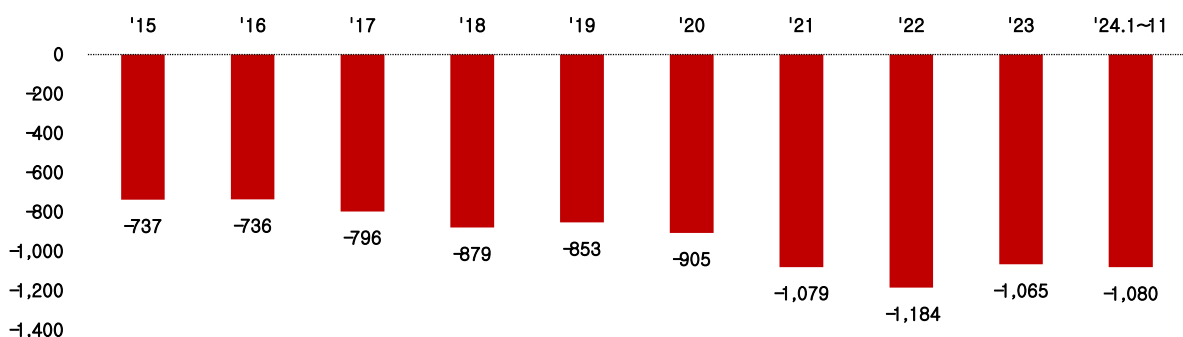
- ▶ (중국) 지난 2.2일 對중국 수입 전 품목에 대해 10%p 인상한 데 이어, 3.4일 10%p 추가 인상(3.14. 기준)
- ▶ (캐나다·멕시코) 2.1일 25%p 인상을 발표했으나, USMCA 적용 품목에 한해 4.2일까지 유예(3.14. 기준)
- ▶ (보편관세) 이행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10~20%p 수준의 시나리오가 언급되고 있음

▶ 트럼프 2기 관세조치는 자국 내 제조업 생산 및 세수 증대,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함

- ▶ 미국은 대표적인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2024년(1~11월) 기준 약 1조 801억 달러 적자 기록
- ▶ 한국은 미국 수입시장 내 7위(4.0%)에 달하는 상위 수입대상국

▶ 미국의 대세계 무역수지 추이('15~'24.11.)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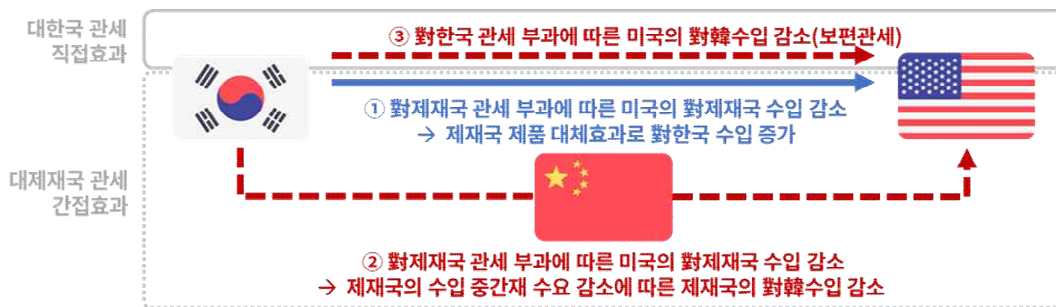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관세 인상 시 ①對美 수출 반사이익(+), ②한국의 對제재국 중간재 수출 감소(-), ③보편관세의 직접적 영향(-)의 경로로 우리나라에 영향

- ▶ (①반사이익)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해외 제재국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경우, 미국 내 제재국 제품 수요가 감소하고 일부 수요가 한국산 제품으로 대체되면서 한국의 對美 수출 증가
- ▶ (②중간재 수출 감소) 미국이 해외 제재국에 대해 관세 인상 시, 제재국의 對美 수출이 감소하면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입이 동반 감소
- ▶ (③직접효과) 미국이 보편관세로 對한국 관세를 인상할 경우, 가격경쟁력 약화로 對美 수출 감소

▶ 미국 관세 인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파급경로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분석 결과, 중국 10%p, 캐나다·멕시코 25%p, 보편관세 시 우리 수출은 132.4억 불 감소(-1.9%) 전망

* 2.5일까지 발표된 사항을 기준으로 분석, 캐나다산 에너지는 10%p로 적용하여 영향 추정

-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정국(對중국·캐나다·멕시코) 관세 조치로 우리 수출 감소폭은 0.03~0.1% 수준에 불과
- ▶ 보편관세 부과 여부가 수출 감소의 변곡점으로, 향후 전면적으로 10%p의 보편관세 시행 시 미국의 총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대세계 수출은 1.9% 감소 예상
- ▶ 한편, 보편관세 부과 시에도 우리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 30개국 중 대미 수출 감소 타격이 4위로 비교적 적은 편

▶ 트럼프 2기 관세조치 영향 분석(시나리오 1~3)

(단위: 억 달러, 2024년 대비 비율%)

수출대상국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對중국 10%p		시나리오1+對캐나다·멕시코 25%p (캐나다산 에너지 10%p)		시나리오2+보편관세 10%p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對미국	4.0	(0.3)	19.6	(1.5)	-100.3	(-7.9)
對중국	-8.1	(-0.6)	-6.8	(-0.5)	-13.0	(-1.0)
對캐나다	-	-	-2.6	(-2.5)	-3.3	(-3.2)
對멕시코	-	-	-12.4	(-9.1)	-15.7	(-11.5)
對세계	-4.1	(-0.1)	-2.2	(-0.03)	-132.4	(-1.9)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공급망 소식통

◆ 2025 찾아가는 관세대응 KOTRA 설명회(울산)(~3.24.)

작성 KOTRA 수출현장지원실

☐ 설명회 개요

- 🔍 사 업 명: 2025 찾아가는 관세 대응 KOTRA설명회(울산)
- 🔍 일 시: 2025. 3. 24.(월) 14:00~16:00
- 🔍 장 소: 울산 deXter(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5층)
- 🔍 참석대상: 수출에 관심이 있는 울산 소재 기업
- 🔍 내 용
 - ▶ 미국 新정부 통상정책 및 진출 유망분야 등 통상 관련 주요 현안 안내
 - ▶ KOTRA 비상대응 지원사업 및 울산지원본부 지원사업 안내
 - ▶ 울산 deXter 시성 안내 및 관련 사업 소개
 - ▶ 질의응답 및 이동KOTRA 1:1 컨설팅

☐ 신청·문의

- 🔍 신청 기간: 2025. 3. 7.(금) ~ 24.(월)
-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무역투자24 사업신청](#) 안내에 따라 신청)
- 🔍 관련 문의: KOTRA 울산지원본부 (052-289-8056)

글로벌 경제지표 ['25.3.18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구 분	'23말	'24말	'25.2말	3/14	3/17	3/18	전일비	전년말비
₩/U\$	1,288.00	1,472.50	1,463.40	1,453.80	1,447.90	1,452.90	0.35	△1.33
선물환(NDF, 1월물)	1,286.80	1,473.80	1,461.00	1,451.40	1,445.50	1,449.90	0.30	△1.62
₩/CNY	181.37	202.38	197.58	201.16	200.32	200.55	0.11	△0.90
₩/¥100	912.25	932.67	975.86	978.20	972.72	969.57	△0.32	3.96
¥/U\$	141.19	157.88	149.96	148.62	148.85	149.85	0.67	△5.09
U\$/EUR€	1.1105	1.0429	1.0383	1.0837	1.0880	1.0904	0.22	4.55
CNY/U\$	7.1092	7.2992	7.2869	7.2416	7.2371	7.2350	△0.03	△0.88

* '24년 평균 환율: (₩/U\$) 1364.8원, (₩/¥100) 900.8원 / '25년 평균 환율('25.1.1일~현재): (₩/U\$) 1450.7원, (₩/¥100) 949.3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4년 최저(해당일)	12/31('24년)	3/17	3/18	전일비	'24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53(11.18일)	75.94	72.22	73.04	0.8	2.7	△2.9
					1.1%	3.9%	△3.8%
철광석	89.35(9.23일)	100.00	103.30	103.50	0.2	14.2	3.5
					0.2%	15.8%	3.5%
비철금속	구리	8,085.50(2.12일)	8,706.00	9,748.00	86.0	1748.5	1128.0
					0.9%	21.6%	13.0%
	알루미늄	2,110.00(1.22일)	2,516.50	2,715.00	△34.0	571.0	164.5
					△1.3%	27.1%	6.5%
	니켈	14,965.00(12.19일)	15,100.00	16,310.00	△250.0	1095.0	960.0
					△1.5%	7.3%	6.4%

반도체

구 분	'23말	'24.11말	'24.12말	'25.1말	'25.2말	3/13	3/14	3/17	3월(~17)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1.74	1.84	1.75	1.74	1.73	1.75	1.76	1.76	1.74
(%, YoY)	△14.8	10.8	0.5	△6.3	△11.1	△9.7	△9.3	△9.2	△10.2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38	6.68	6.63	6.63	6.62	6.65	6.65	6.70	6.65
(%, YoY)	△2.3	4.0	3.9	3.8	3.2	3.8	3.8	4.6	3.7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12/29('23년)	12/27('24년)	2/28	3/7	3/13	전주비(3/7)	전년말비
SCFI	1759.57	2460.34	1515.29	1436.30	1319.34	△8.1%	△46.4%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12/22('23년)	12/24('24년)	1/2	3/13	3/14	3/17	3/18	전주비(3/17)	전년말비
BDI	2094	997	1029	1650	1669	1658	1650	△0.5%	65.5%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gvc_monitoring@kotra.or.kr
한국무역협회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피드백하러 가기

주관기관



한국무역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협력기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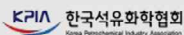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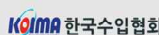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수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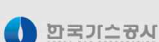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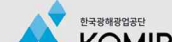
전라물자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